

주공, 부도임대아파트 사들인다

대부분이 사업자 부도로 보증금도 못받아
광주·전남 3,700채 매입 세입자에 재임대

정부가 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전남지역의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세입자에게 되돌려주는 임대아파트 매입사업에 추진한다.

부도아파트는 사업자가 부도를 내 입주할 하지 못했거나 입주후 부도가 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집을 비워준 아파트로 광주·전남에는 4천500여가구가 이르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11일 지역 부도아파트 가운데 3천712가구를 매입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부도 임대주택 매입 대상(1만8천여가구)의 20.6% 수준으로, 지역 내 부도주택 문제가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공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부도 임대주택 매입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2천885억원을 들여 450가구를 매입하고, 나머지 3천262가구는 5~6년 내에 모두 사들일 방침이다.

주택공사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은 뒤 세입자들의 의사를 물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거나 국민임대주택으로 재임대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거나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3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들의 권익보호 효과가 크다

■ 광주·전남 부도임대주택 매입 대상 현황

단지명	가구수	단지명	가구수
영암 삼호중원아파트	7	해남 공간아파트	18
장성 부강아트빌리지	10	광주 도산동 정림	64
해남 백두3차	7	광주 오차동 정림	115
순천 한림세이텔	40	광양 개원아파트	180
순천 아이파빌	44	장흥 개명아파트	76
장성 부강아트빌리지2차	25	광주 도산동 금강2차	176
화순 사민4차	25	광주 송정동 금강2차	3
해남 백두1차	74	광주 중원리리빌	12
순천 트리시티	121	광주 매곡동 부림	31
해남 백두2차	58	화순 사민2차	13
광주 키아스트빌2차	128	순천 금강메트로빌 15년	707
광주 키아스트빌3차	94	광양 장덕메트로빌 15년	468
광주 키아스트빌4차	236	광양 장덕메트로빌 25년	862
해남 백두4차	128	합계	3,712

다는 게 주공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분양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봐야 했다. 부도 임대아파트는 사업주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끌어다 쓴 국민주택기금을 갚지못해 금

용기관에 가압류된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아파트는 전국적으로는 6만5천여가구에 달한다.

한편 부도 임대아파트 매입사업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보증금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작했다.

적용 대상은 2005년 3월 13일 현재 임대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2007년 4월20일 전에 부도가 발생한 주택이다.

주공 광주전남본부 주거복지팀 소병길 부장은 "부도 임대주택 매입 정책은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예산 확충으로 보다 많은 불량 아파트를 단기간에 매입할 수 있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최우수 金庫’의 집안 싸움

광주 S새마을금고 이사장-이사 간 법정 다툼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최우수 등급로 선정된 광주 S새마을금고가 이사장과 이사회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11일 S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 금고 최고(52) 이사장은 "안모(72) 부이사장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 자신에 대한 해임요구서명 받고 있다"며 지난 4일 안 부이사장과 이사, 전무 회원 등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최 이사장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2월 이사장에 취임한 후 금고 경영을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

게 경영하자 이에 반발한 기존 세력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안 부이사장 등은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채택한 뒤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지난달 이사들의 제보에 따라 이 문제로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감사를 받았으나 문제는 커녕 단 하나의 지적사항도 나오지 않았다"며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적

이 없는 데도 이사회가 거짓말로 회원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또 "취임 이후 투명 경영을 통해 지난해 3억5천700만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자산건전성도 크게 개선됐음에도 오히려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금고의 투명성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부이사장 등은 최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이사장 봉급을 크게 올리는 등 금고를 사금용화하려 한다며 광평히 맞서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봄맞이 풍선아트 전시회’ SK텔레콤 서브마케팅본부(본부장 안형규)는 오는 17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사옥 1층에서 ‘봄맞이 풍선아트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봄을 느낄 수 있는 숲과 꽃, 마차 등 풍선으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SK텔레콤 서브마케팅본부 제공)

세계적 열처리 기업 ‘광주에 등지’

美 필로스 테크놀로지 500만달러 MOU 체결

세계적인 금속 열처리 전문회사인 미국 ‘필로스 테크놀로지’(Philos Technologies)사가 광주에 등지를 든다. 필로스 테크놀로지는 기존 금형보다 2~3배 수명이 긴 금형을 생산할 수 있는 TNHT(Titanium Nano Heat Treatment·티타늄 나노 열처리)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이다.

테크놀로지 고종호 회장과 금형, 절삭공구, 자동차 부품용 광주에서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 500만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체결에 따라 필로스 테크놀로지는 평동산단 금형집적화단지에서 티타늄 열처리 서비스 센터와

제조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 광주 테크노파크 사업화동에서 명품 나이프와 이·미용 가구를 생산할 계획이다. 필로스 테크놀로지는 광주 공장이 설립될 경우 그동안 타지역 업체에 자동차·주물 열처리를 의뢰해왔던 제조업체의 물류·제작 비용이 절감되는 등 금형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세청 인사 쇄신 예고

업무평가서 '하위 10%' 상시 정리 시스템 도입

국세청이 업무평가에서 하위인 직원을 상시 정리하는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활력곡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인사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한상목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리츠칼트호텔에서 열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조찬 세미나에서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강의하면서 "인사를 연공서열에서 성과와 역할 중심으로 하겠다"며 "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E의 활력곡선은 조직원을 20%

의 핵심정도에, 70%의 중간층, 10%의 하위로 구분해 상위 20%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미래의 리더로 육성하지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상시 정리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철저하게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인사를 차별하겠다는 의지"라며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신분보장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부처에서 GE의 활력곡선을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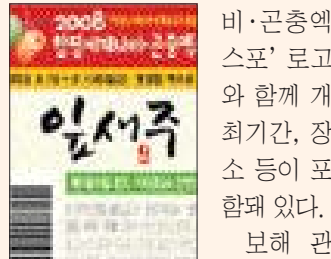
앞새주 타고 ‘함평나비’ 훨훨

보해 '세계나비·곤충엑스포' 홍보 나서

지역축제 알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보해가 이번에는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홍보에 적극 나섰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진우)는 "함평나비엑스포 홍보를 위해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생산하는 앞새주 후면상표(사진)에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홍보문구를 새겨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새주 후면상표에 들어가는 홍보문구에는 "2008 함평세계나



비·곤충엑스포' 로고와 함께 게재될 예정이다. 보해 관계자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축제 등 각종 이벤트에 앞새주 후면상표 마케팅을 추진, 보해제품과 지역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레미콘업체도 납품단가 인상 요구

조합원 1,500명 '원자재값 급등 적자 누적' 불만

주물업체에 이어 레미콘 업체들이 납품단가를 올려달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해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속 회원 1천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켈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현재의 단가로 납품을 계속할 경우 적자만 누적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레미콘조합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시멘트 가격은 t당 30%, 자갈은 m당 26% 정도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가 12% 정도 올랐다고 밝혔다.

레미콘 업계는 이에 따라 납품단가가 최소한 9% 이상 올라야 원가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2일 켈기대회를 갖고 레미콘을 납품받는 주요 건설사에 납품단가를 올려줄 것을 요청한 뒤 건설업체들의 협상 태도에 따라 생산 중단

까지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배조용 이사장은 "원가보상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주요 건설사에 호소하고 있다"며 "생산할수록 적자가 쌓이니 불가피한 경우 이달 내에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차 납품중단을 벌였던 주물조합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갖고 17일부터 3일간 2차 납품중단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주물조합 관계자는 "생형주물은 kg당 240원 이상, 푸란수지형 주물은 kg당 280원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가업 측이 제시한 가격이 대부분 요구안의 50% 미만이었어서 2차로 납품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강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비타민 C·E, 셀레늄, 아연) 보강!

피로는 풀고, 피부건강은 지키고-아로나민 씨플러스

스트레스, 과로, 수면부족, 과음, 과식, 흡연...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각종 질병과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피부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비타민군에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제(비타민 C, E, 셀레늄, 아연)가 보강된 아로나민 씨플러스- 하루 두번, 피로를 풀고 피부건강을 지켜주세요.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C, E, 셀레늄, 아연 / 750mg / 100% 함유 / 100% 천연 / 100% 순수 / 100% 안전

(주)일동제약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회기2동 / 일동빌딩 11층 / 02-265-1111 / www.ildongpharm.com

국세청등록번호 4401-0400